

# 2011년 오리산업전망

글 : (사)한국오리협회



## 1.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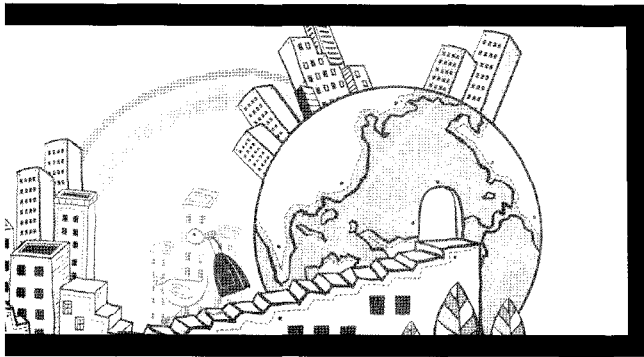
'08년 발생되었던 HPAI로 인하여 축소되었던 오리고기 소비량은 '09년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10년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0년 1~11월까지의 오리사료 총 생산량은 565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462천톤) 32.8% 증가하였고, 도입수수는 68,675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48,998천수) 40.2% 증가하여 '10년 오리산업은 전년 대비 최소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한 때 오리고기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오리고기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계열업체에서는 냉동 재고를 최소한으로 두고 생산된 오리고기를 모두 소진하였으며, 홈쇼핑 판매 시 연이은 매진사례 등은 오리고기 소비증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계열사의 대형마트, 홈쇼핑 및 인터넷 매출 증가는 요식업소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벗어나 가정 내 소비증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 내 소비증가로 예전에 뚜렷한 계절편차를 보이던 소비가 일정부분 고르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국

가 정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축산관측에 오리가 포함되어 9월부터 분기단위의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통계청은 가축동향조사에 오리를 포함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품목별 육성을 위해 조직된 대표품목조직 중, 오리의 대표조직인 한국오리협회는 생산부터 유통·가공까지 다양한 R&D사업을 시작하였고 '10년 8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오리고기도 포함돼, 오리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시설(오리농가)의 낙후는 생산성 제한 및 질병 발생확률의 증가로 산업발전에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축의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종오리가 아닌 F1 오리에서의 생산은 수급조절기능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축 중심의 체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에도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의 고병원성 AI발생이나 국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검출이 증가되고 있어 이 또한 소비심리에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소비에 비해 국내 수급에 한계를 가져다주게 된 것은 사육농장수의 제한이다. 환경규제나 민원 등으로 축산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는 것은 계열업체의 농가 확보 전쟁이 일어나다 시피 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중국이나 대만 등의 수입량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10년 오리산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많이 이루어 냈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2010년 오리산업 결산

### 가. 생산실적

#### (1) 도입현황

2010년 1월~11월의 도입실적은 68,676천수로 전년 동

기(48,998천수)에 비해 40.2% 증가하였으며 12월 말까지의 총도입량은 약75백만수 정도로 예상되어 전년에 비해 대폭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7.2%가 증가하였고, 2분기는 33.1%가, 3분기에는 32.2%가 증가하여 1분기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오리도입수수 증가율을 보면 '06년 47.5%, '07년 35.8%로 '05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 하였으나 '08년 HPAI 발생으로 '08년 16.7%, '09년 12.5%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10년에는 약 40%정도의 증가세가 예상되어 HPAI 발생 이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 (2) 수출입현황

'09년에는 오리관련 축산품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 및 태국 등이 HPAI 상시 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중단되는 까닭에 오리고기 및 열처리가금육의 수입량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10년 중순부터 중국에서 열처리가금육(훈제 등) 수입이 증가하여 11월까지 약 1,748톤(2009년 342톤)이 수입되었으며 5월부터는 대만에서 오리고기(냉동육)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약353톤(2009년 10톤)이 수입되었다.

이와 같은 수입증가의 원인은 오리고기 소비증가와 산

【표 1】 도입수수

(단위: 톤,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	2,465	2,535	3,360	4,005	4,830	5,575	5,936	5,522	5,412	4,764	4,594	5,473	54,471
2010	4,790	4,454	5,569	5,818	6,350	7,010	7,609	7,441	7,257	6,578	5,800		68,676
전년대비	94.3%	75.7%	65.7%	45.3%	31.5%	25.7%	28.2%	34.8%	34.1%	38.1%	26.3%		

\*자료 : 한국오리협회



## 집중탐구

2011년 오리산업전망

업의 확대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물량을 대체하려는 현상과 함께 오리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소비형태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던 것이다.

오리고기 수출은 '06년 이후 지속적인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오리고기 수출은 대부분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데, '06년 11월 고병원성 AI발생 이후 '09년까지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09 12월 3년 만에 재개되었으나 15일 뒤 AI발생으로 수출이 다시 중단되었다.

'10년에도 4월과 9월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5월, 6월, 10월, 11월, 12월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이 중단이 계속 되었다. 그 결과 '10년 오리고기 수출은 일본에 약 38톤을 수출한 것이 전부이다.

한편 오리근위(118톤), 오리머리(48톤), 오리발(42톤) 등이 '08년 이후 다시 수출되었으며 오리털(6,928톤)이 전년(3,846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압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3) 종오리 사육 및 새끼오리 생산

종오리 사육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산란오리 사료 생산량을 보면 '10년 1월~11월까지 50,079톤으로 전년 동기 34,880톤 대비 43.6%증가하여 2000년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올해 산란오리 사료 총생산량은 55,000톤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2000년 23,012톤에 비해 무려 2.4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13,400톤(월평균 4,467톤)으로 전년 동기 9,408톤(월평균 3,136톤)대비 42.4%증가, 2/4분기에는 12,642톤(월평균 4,214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8,510톤(월평균 2,837톤) 대비 48.6%증가, 3/4분기에는 13,739톤(월평균 4,580톤)으로 전년 동기 9,402톤(3,134톤) 대비 46.1%로 증가하는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4/4분기에는 전년 대비 30%내외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성장률이 1~3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08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종오리 살처분 및 도태가 이루어져 산란 종오

【표 2】 오리고기 수입현황

년 도	오리고기	오리육가공품	오리간	염처리가공육
2009년	10,750kg	15,315.6kg	7,801kg	342.2t
2010년 1~11월	352,937.3kg	3,421.9kg	11,684kg	1,748.3t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표 3】 산란오리 사료 생산량

(단위: 톤,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	3,094	3,072	3,242	3,290	2,674	2,546	2,557	2,957	3,888	3,855	3,705	4,418	39,298
2010	4,195	4,333	4,872	4,596	3,967	4,079	4,656	3,958	5,125	4,545	5,753		50,079
전년비	136	141	150	140	148	160	182	134	132	118	155		
전월비	95	132	112	94	86	103	114	85	129	89	127		

※자료 : 한국오리협회

리 수가 줄었던 것이 '09년 초까지 유지되다가 '09년 초부터 소비량이 늘어남으로써 '09년 상반기 종오리 입식이 크게 증가되었고 하반기 산란 종오리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산란오리 사료량에 따른 종오리 사육물량은 1/4분기에 월평균 645천수, 2/4분기는 672천수, 3/4분기는 734천수가 사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폐킨종 암컷의 사육물량은 월평균 1/4분기 447천수, 2/4분기 475천수, 3/4분기 528천수가 각각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어 하반기 사육물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종오리DB에 집계된 종오리수(10.11.30 현재)를 보면 폐킨종은 775,099수로 전체 종오리 중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산란하고 있는 종오리는 556,499수(암컷)로 PS는 380,780수(68.4%), F1오리는 175,719수(31.6%)다.

종오리DB에 집계된 산란중인 종오리(폐킨종 암컷)를 보면 1/4분기에는 440천수, 2/4분기에는 467천수, 3/4분기에는 479천수로 집계되어 산란오리 사료량으로 추정된 사육수수와 비교해보면 1~2분기는 비슷하나 3분기에는 10%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F1오리 입식이 증가했거나 사료량에 따른 종오리 사육량 추정방식이 계절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발생한 오차로 파악된다.

한편 F1오리는 전년 동기 225천수에서 176천수로 절대적인 수에서도 줄었지만 PS와 F1의 사육비율도 49 : 51에서 68 : 32로 변화되고 있어 이는 법적으로 정립된 종축의 개념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 종축의 개념이 온전히 정착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종오리DB에 조사된 F1오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외규정(종오리 알 이외의 오리에서 생산된 알 부화 허용)이 종료된 시점(10. 6. 30)보다 현재(10. 11. 30기준) 8.5% 감소하였으며 새로이 입식된 F1오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종축의 개념 정착과 수급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F1오리 도태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란오리 사료를 근거로 추정한 폐킨종 새끼오리 생산수는 '10년엔 총 101,528천수(월평균 8,460천수)로 추산되었으며 전년대비 3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22,852천수, 2/4분기 29,383천수, 3/4분기 23,418천수, 4/4분기에는 25,874천수로 추정하고 있다.

'10년 수입된 종오리는 427천수(암컷기준)로 전년 대비(271천수) 57.5%증가 하였으나, 영국의 체리벨리사 부화장에서 살모렐라 typhimurium이 발생하여 지난 '10

【표 4】 종오리(PS) 월별수입현황

(단위: 암컷수기준/마리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4,950	6,300	-	20,960	23,900	38,380	5,000	14,200	21,690	37,740	-	-	173,120
2008	13,750	21,570	32,910	23,120	23,060	5,500	13,952	20,000	15,900	10,000	-	-	179,762
2009	2,440	8,520	28,750	31,320	32,570	24,450	29,810	27,350	28,950	25,830	24,150	7,070	271,210
2010	19,190	31,930	36,580	43,820	55,120	63,950	41,090	34,450	38,000	17,550	19,840	15,710	427,230

※자료 : 한국오리협회

년 10월 중순, 수입이 재개 된지 21개월 만에 다시 수입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4/4분기 종오리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급년 11월부터 계획되었던 원종오리(GPS)의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2011년 종오리 수급과 원종오리사업에도 크나큰 차질과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4) 육용오리 생산**

육용오리 생산물량은 3/4분기까지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4/4분기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하절기 소비를 위한 생산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육용오리 생산 추정물량은 92,727천수가 생산되어 전년대비 34.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육용오리 생산량을 보면 1/4분기 20,650천수, 2/4분기 26,263천수, 3/4분기 24,248천수, 4/4분기 21,560천수가 각각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와 같은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4분기는 59.6%, 2/4분기는 46.9%, 3/4

분기는 46.9%, 4/4분기는 0.5% 증가되어 여전히 하절기 생산이 집중되었다. 4/4분기 생산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생산비중이 높은 전라남도 지역의 종오리 농장과 육용오리 농장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오리고기의 소비 및 가격동향**

**(1) 소비동향**

'10년 국내 육용오리 생산량을 기초로 추정된 오리고기 생산량은 정육을 기준으로 122천톤이며 수입 오리육류는 가공품을 포함하여 2,116톤 내외(1~11월)로 집계되었다. 상반기 급격한 소비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 오리의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수입이 대폭 증가했을 정도로 오리고기 소비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8년 AI발생 이후 200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상반기부터 경제위기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육용오리 생산

(단위:천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	3,714	4,106	5,121	5,122	6,262	6,500	6,153	5,492	4,867	6,003	8,019	7,428	68,791
2010	6,402	7,157	7,091	7,378	9,612	9,273	9,128	7,729	7,391	6,283	8,093	7,184	92,727
전년대비	72.4	74.3	38.5	44.0	53.5	42.7	48.4	40.7	51.9	4.7	0.9	-3.3	34.8

※자료 : 한국오리협회

【표 6】 육용오리 시세

(단위: 원/수,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0	6,619	6,700	7,232	7,833	8,200	8,200	7,997	7,355	6,583	6,500	6,833	(7,000)	7,254
2009	6,000	6,482	6,919	6,500	6,919	6,567	6,855	7,000	6,653	6,200	6,200	6,200	6,552
등락 (10/09)	10.3	3.4	4.5	20.5	18.5	24.9	16.7	5.1	-1.1	4.8	10.2	12.9	

※생체오리 3kg기준,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또한 다수의 계열업체에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 하면서 대형 유통매장판매 강화, 단체급식,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을 강화하여 단조로운 요식업소 위주의 판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09년에 이어 한국 오리협회에서 오리자조금으로 PPL광고 및 요리블로거를 통한 오리고기 이벤트, 계절별 특성에 맞춘 홍보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였던 것도 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 (2) 가격동향

'10년도 4/4분기 산지오리 평균가격은 수당 6,778원으로 전분기 7,312에 비해 7.3%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9.3%상승하였다. 육용오리 가격이 전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특히 2/4분기는 국내산 오리고기 부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7.9%, 전년대비 21.2%의 높은 상승을 보여 예년보다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올해는 환율의 안정화 등으로 사료가격이 일부 인하되어 생산비가 일부 감소되었고 소비증가로 인한 육용오리의 가격 인상 등은 농가 및 업체의 수익증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전남 지역 농가에서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질병발생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로 일부 손실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2011년도 오리산업전망

여전히 오리산업 발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10년에도 지속적인 AI발생(저병원성, H5,

H7)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세균성 질병발생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또한 영국 체리밸리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됨으로써 종오리 수입이 중단되어 종오리 수급 및 원종오리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므로 '11년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11년도 오리산업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소·돼지·닭의 대체 육류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경향은 지속적으로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개선에 일조하고 있으며 오리고기에 대한 다양한 소비 방식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 발맞추어 정책부분에 대한 발전과 종오리수입 확대, GPS 도입,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산업의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증가에 편승하여 경제성이 경과된 종오리의 도태지연 및 F1오리의 불법입식, 저품질 오리고기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오리산업이 자체 수급조절에 실패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 가. 종오리 및 새끼오리 생산

'10년 하반기 영국 체리밸리사에 대한 종오리 수입중단으로 프랑스 그리드드사에 편중된 한계는 있으나 '11년도 종오리 수입은 약 75만수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10년에 비해 80%이상, '09년에 비해서는 180%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불과 2년 만에 200%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종오리 수입이 이처럼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소비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성저하 종오리의 적기도태 및 F1오리 입식금지를 통해 질병예방과 종오리(FS)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오리업계 의지의 소산이다. 경제성저하 종오리 및 F1오리에 대한 대체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F1오리의 불법입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 '11년 종오리 사육수수는 80~100만수 정도로 예상되며 F1 오리 입식 근절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오리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0년 입식한 종오리 수는 '09년에 비해 5%정도 증가한 것(종오리 DB자료 기준)을 볼 수 있다. 다른 통계에 비해 입식수수가 소폭만 증가한 것은 하반기 F1입식 금지와 영국 체리벨리 수입중단 영향이다. 실제로 상반기 종오리 입식수수는 373천수로 '09년에 비해 45.7%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178천수로 '09년에 비해 2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1년도 상반기 새끼오리 생산량이 증가하여 1/4분기에는 사상최초로 월별생산량이 1천만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11년도 상반기 입식 물량이 증가하여 예년수준이거나 약간 상승한 수준의 새끼오리 생산이 예상된다.

한편 영국 체리벨리사의 수입중단 사태로 인해 '10년 말 본격적인 생산체계에 돌입하려던 원종오리(GPS)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11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재개되어 '12년 종오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육용오리 사육

'11년은 오리고기 소비의 증가에 맞춰 농장수의 증가나 농장별 사육규모가 대형화 될 것이며, 1/4분기에는 월평균 750만수정도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3/4분기부터는 전년보다 5~10%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 경기의 회복 조짐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재고량 감소는 일부 곡물가의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는 사료 값 증가로 이어져 생산비가 증가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리농가에서도 사육단계별 HACCP인증과 무항생제 인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에 오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낙후된 사육 시설은 생산성 저하 및 질병관리에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니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하루빨리 축사시설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오리 가격 전망

'10년도 생체오리 가격은 약 11% 증가했으며 당연하게도 공급물량과 소비의 증감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가 늘고 공급이 부족했던 2분기에는 8,2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9월에는 공급이 증가되면서 전년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10월부터는 전남지역 질병발생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다시 가격이 상승하였다. '11년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소비의 증가로 가격이 오를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11년 종오리 사육수수와 PS수입물량으로 볼 때 공급이 충분하여 올해와 같은 부족현상은 없을 것이고 아직도 오리고기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며 '08년, '09년 충분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급락과 급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위기상황이나 AI등 심각한 질병이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오리가격은 강보합세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된다.

한편 오리고기 가격이 더욱 안정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계열유통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단체급식 등 유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오리고기 소비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되며 오리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기능성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오리 유통관련 조사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증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오리자조금 사업으로 TV PPL광고, 지하철광고, 다양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구매 의욕을 일으켜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조금 조성을 위해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오리시장 전망

2011년 소비확대와 더불어 오리시장은 판로의 다양화, 새로운 업체의 시장진입, 수입 확대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측 겨울호는 전년대비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가 5.3%p,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판매가 5.5%p 상승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듯 판매의 다양화와 소비패턴의 다양화는 앞으로 오리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업체들의 오리시장 진입과 수입의 증가이다. 그 자체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을 따질 수 없겠지만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수입증가는 오리산업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오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계와 종사자들 대부분이 수십년 전 국내 오리산업이 발생하던 시기부터 아무런 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피눈물 나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끌어왔다.

그동안 이들은 당장의 이득을 추구하는 손쉬운 방법 대신 오리고기의 생산성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나름의 룰(자율수급조절 등)을 스스로 지켜가며 경쟁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상생을 통해 산업을 현재와 같이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당장 이득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오리산업에 진입하는 것은 그동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서로 협력해 온 기존 시장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정된 시장 안에서 너무 많은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은 물론 수급조절에 크나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오리산업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업체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수입 또한 저가, 저품질 오리고기를 수입하여 당장의 이익을 창출하려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